

“금생에 닦으면 그 공덕 내생에도 이어져”

동도사 화엄산림법회-광명각품 보살문명품

법산 스님(동국대 명예교수)

한 생각 돌이키면 깨달을 수 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깨닫기 위해서는 꾸준히 수행하고 닦는 습관이 필요하다. 평상심이 도라는 말이 있듯 무심히 닦고 노력하는 삶이 깨달음에 이를 수 있는 방법일 것이다. 동국대 명예교수 법산 스님은 동도사 화엄산림 법회를 통해 어떤 마음으로 수행을 하고 불법을 대해야 하는지에 대해 설명했다.

정리=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반갑습니다. 날마다 좋은날이라 하는 건 날마다 항상 기쁘고 즐거운 날을 말하는 겁니다. ‘평상심이 도’라는 말이 있습니다. 마음이 항상 맑고 밝고 깨끗한 기운이 펼쳐 나와야만 항상 좋은 날이 되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오늘은 기분 좋은 날이라고 생각하고 일어나면 하루 종일 기분이 좋아요. 하는 일이 뜻대로 잘 안 되고 꿈도 뒤숭숭하고 어째서 짜뿌둥하고 허리도 한 집 짙어진 거 같고 그러면 자버리는 게 좋아요. 하지만 본래 이런 사람이 아닌데 몸이 꼬여서 오늘 분위기를 망쳐서 되겠느냐 일어나기로 한 생각 바꾸면 벌써 일어나게 되죠. 그러면 새로 위치는 겁니다.

(대방광불 화엄경)의 의미가 때때로 한량없는 법 속에 갇혀 있는 거 같지만 그 속에서 한 생각 깨어나라는 말씀이 구구절절이 담겨 있습니다. 한 생각 한 생각 용기를 내어 일으키면 날마다 삶의 아이디어가 샘솟습니다. 즐겁게 되는 거죠. 세상에는 해가 뜰 때도 있고 질 때도 있습니다. 입에 넣으면 곱그러운 보리밥도 꼭꼭 씹으면 단맛이 빠져 나옵니다. 잘 삼키면 힘이 솟아 나오게 돼있습니다.

용기 잃지 마세요. 모두가 훌륭한 기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모르고 있을 뿐이죠. 항상 24시간 깨어 있는 마음으로 바뀌어나가게 되면 맛있는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부처님 법을 만나게 된 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 잘 알아야 합니다.

오늘 수업은 광명각품입니다. 이름만 들어도 환하죠. 밝은 빛을 깨우치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번 주제로 법문을 하려다 보니 여러분들이 이곳에 강의를 하러 오기도 전에 벌써 이 공간이 환하게 밝아져 있는 느낌이 들더군요.

깨달음의 성품이 다 들어 있는데 개인이 코팅으로 가려 놓고 막아 놓아서 그것을 벗기지 못하고 그 속에 들어앉아서 풍뎡이 괴로워하고 있어요. 그걸 확 치고 나오면 되는데 가려진 커튼을 걷지 못하고 닫혀진 문을 열지 못하고 있는 거죠.

(대방광불화엄경)은 깨달음의 경지에서 모든 사람이 깨달을 수 있다는 용기와 희망을 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두 발로 다니는데 두 발을 의식하면서 발을 들었다 놓았다 하면서 깨어 있는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부처님 발은 디터 놓는데 마다 광명이 납니다. 가는 곳마다 자꾸 실법을 해주는 모습이죠. 32상 80종호 모습에는 광채가 납니다. 밝은 광채가 난다 해서 금인이라 해요. 금으로 된 사람이라는 뜻이죠. 부처님의 말씀을 금구연설이라고 해요. 부처님의 입은 금으로 돼 있습니다. 금쪽 같은 말씀만 해주시죠.

참 소중한 것입니다. 부처님의 발을 옮겨 놓아서 가는 곳마다 빛이 나고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부처님 발에 이마를 대고 절을 합니다.

일체 세간에 집착하면 안 됩니다. 세간이라는 것이 중생의 마음입니다. 때 묻은 마음이 중생의 마음입니다. 빨간색을 묻혀 놓고 파랗다고 하고 파란 것을 묻혀 놓고 빨갛다고 합니다. 노란 안경 낀 사람하고 파란 안경 낀 사람이 만나서 얘기하면 얘기가 되겠습니까? 안경을 벗어야 합니다. 빨간 안경을 쓰면

저마다 깨달음의 성품 있지만

장벽 때문에 알아보지 못해

스스로 수행하며 닦고 깨달아

회향할 수 있는 마음 가지면

밝고 맑은 지혜 되살아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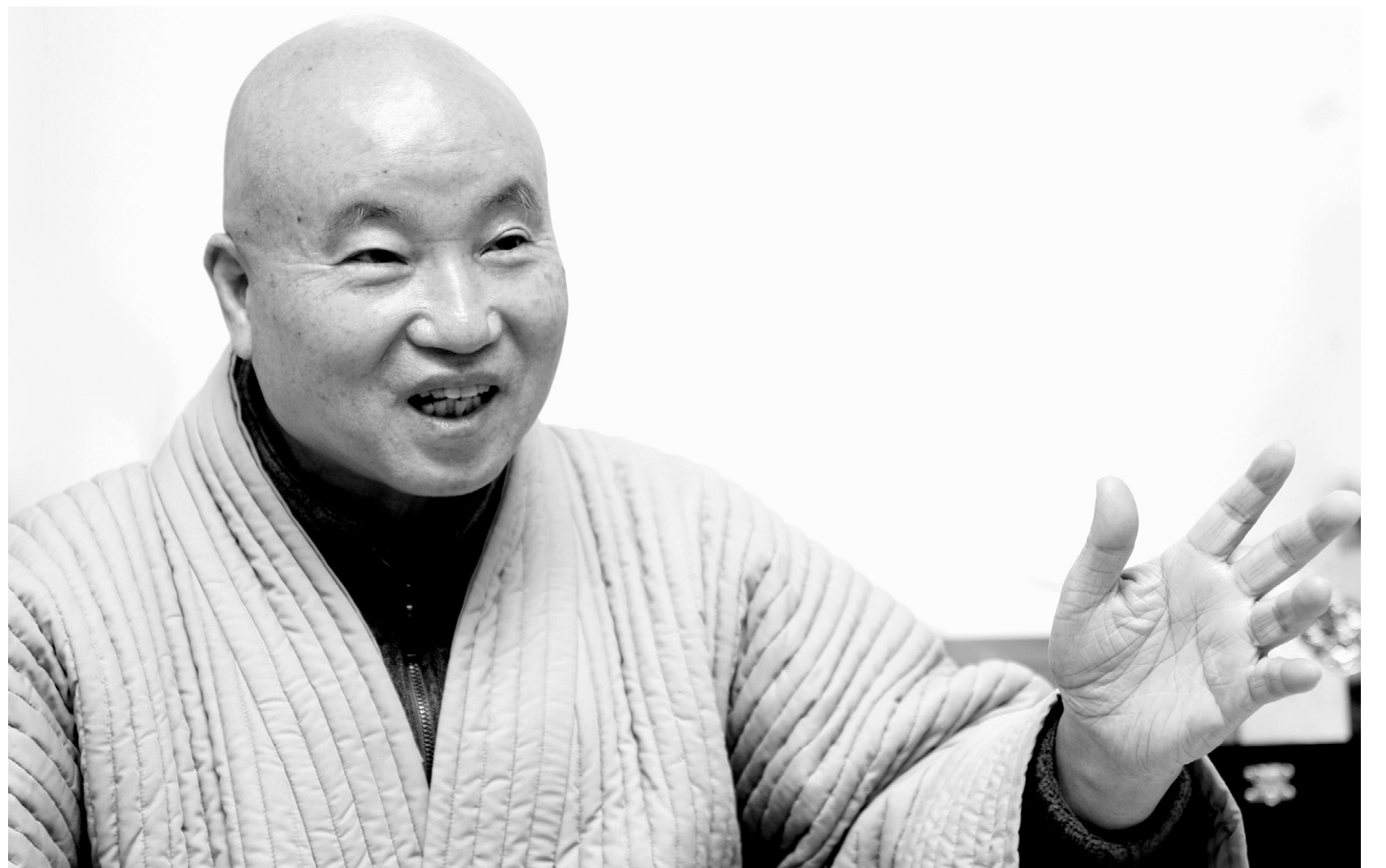
빨간 데 걸리고 노란 안경을 쓰면 노란데 걸리게 됩니다.

새겨진 정보와 지식에 따라서 사람이 움직이고 고집을 쓰고 풍뎡이 거기에 묶여 가지고 사니 답답하고 고생스럽습니다. 이럴 때 부처님 법이 더 절실합니다.

마음의 생명을 새롭게 해주는 분이 부처님이기 때문이죠. 부처님 법을 공부하면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을 씻어내고 번뇌망상이 없어져요. 부처님 이름만 들어도 기분이 좋고 마음이 흐뭇하고 걱정 근심도 없어지고 살기도 없어지고 부글부글 끓는 원한도 없어져버리죠. 그러면 온갖 고통도 사라져 버립니다.

부처님을 생각하면 우리도 부처님 같이 살려고 하는 염원을 가지고 상에 걸림이 없이 살아야 되는데 자꾸 걸려듭니다. 거기에 가능한 걸리지 말고 사는 게 좋습니다. 자꾸 자꾸 수행을 해나가면 빨리 부처가 될 수 있습니다. 부처가 된다는 것이 달라지는 게 아닙니다. 마음을 닦으면 밝아집니다. 해 뜨면 차차 밝아지듯이 말이죠. 내 마음이 어두운 방에 불을 켜고 가는 것같이 말입니다.

선방에서 참선하는 스님들이 도 깨쳤다고 소리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한 소리 하면 그건 가짜예요. 어두운 동굴에 불을 들고 갔으면 밝아졌을 뿐입니다. 맛이 있으면 그냥 맛있는 겁니다. 번뇌망상이, 나를 옥죄고 있는 잘못된 생각들이 점점 줄어들게 되면



법산 스님은... 15세에 남해 화방사로 출가한 법산 스님은 1967년 경남대 전신인 마산대 종교학과에 입학하면서 학문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고(故) 서경수 동국대 교수의 권유로 1969년 인도철학과에 입학하고 대학원 석사과정에서 '중론'을 전공했다. 1985년 6월 중국문화대학에서 '보조선의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은 스님은 다음 해인 1986년부터 2011년까지 동국대 선학과 교수로 재직했으며 현재 동국대 명예교수를 역임하고 있다.

마음이 아름답고 편안해지게 됩니다. 마음을 살펴보게 되면 동요함이 없습니다. 부처님의 본래 몸과 마음도 이와 같으니 수승한 지혜를 일으키게 됩니다. 반야의 지혜는 걸림이 없습니다. 부처님의 지혜는 누구에게나 기쁨을 줄 수 있는 지혜입니다.

부처님의 법을 잘 배워서 깨달으면 환하게 밝아서 있다 없다 옳다 그르다 분별심에 치우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편안하고 불가사의한 지위에 오르게 됩니다. 부처님은 되지 않는 게 없고 모르는 게 없습니니다. 안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반드시 할 수 있다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참선하고 (금강경) 읽고 있는데 '반드시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하면 정말 할 수 있습니다. 언젠가는 될 날이 있습니다. 금생이 안 되면 내생, 내생이 안 되면 내내생에 될 겁니다. 금생에 열심히 닦고 나면 그 공덕은 내생에도 이어집니다. 어찌 목욕을 잘해 놓으면 오늘 깨끗한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도 하고 내일도 하고 깨끗하게 하는 심정으로 열심히 수행을 하면 반드시 됩니다.

이와 같이 모든 것에 집착 않고 모든 것을 알게 되면 마땅히 석가모니 부처님같이 성자가 될 수 있습니다. 생명 하나하나가 모두가 밝고 명랑하게 깨달으면 다 밝게 살 수 있습니다. 걱정 근심하지 마세요. 가장 급한 것은 내 마음 닦는 게 중요합니다.

염불하십시오. 자녀들에게도 권해보십시오. 학교에 가서도 자면서든 관세음보살을 늘 염불하면 업장이 소멸됩니다. 걱정 근심 번뇌 망상 게으름이 줄어들어요. 공부도 잘돼요. 물론 기도하는 것이 힘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습관 들이기 나름입니다. 세상에 못할 것이 없습니다. 능히 참된 진리의 법을 알아차리면 크고 밝고 빛나는 내 마음의 밝은 생각이 그대로 피어나게 됩니다.

구름이 끼면 오늘 해가 없다고 그러니까. 해가 없는 게 아니죠. 구름 속에 있는 거죠. 그러니 구름만 걷으면 맑은 태양이 오게 돼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걱정 근심만 없어지면 반야의 지혜는 스스로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일체의 지혜를 갖고자 하면 회향심을 잘 일으켜야 합니다.

회향심은 돌이키는 마음을 말합니다. 돌려주는 마음이죠. 세상에 자기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을 돌이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을 거울에 비치면 거울에 얼굴이 있습니다. 거울에 담겨 있는 내 얼굴을 내가 봅니다. 눈곱이 끼어 있는지 베타이가 비뚤어졌는지 거울이 가르쳐 줍니다. 본래 가진 것이 아닌데 되돌려줘요. 거울이 돌이켜주는 것을 보고 알아차리게 돼요. 지혜로운 사람은 즉 지혜 있는 부처님 같이 성스러운 사람은 생명이 보고 알 수 있게끔 모든 법을 돌이켜줍니다. 회향한다는 말은 여러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다. 배고픈 사람한테는 밥도 주고 추운 사람한테도 옷도 주죠. 보시도 회향입니다. 거울은 무한 보시를 합니다. 내가 가진 것이 없어도 온갖 회향을 할 수 있습니다. 가진 것이 없어도 보시를 더 잘해야 합니다. 또한 많이 가진 사람도 많이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쓰는 게 중요합니다. 지혜롭게 써야 환영받습니다. 잘 쓰면 환영받고 칭찬받고 남을 기쁘게 해줍니다. 그것은 바로 중생을 이익 되게 하고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는 것입니다. 중생이 부처입니다.

우리는 항상 중생을 이익 되게 하기 위한 연습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늘 회향할 수 있는 공양이 됩니다. 이와 같은 생각을 가지게 되면 부처님과 비슷한 결과를 얻게 됩니다. 우리도 부처님 같이 됩니다. 일체 법에 잘 순응해서 잘 알게 되면 시방세계에 두루 두루 신통력이 나투게 됩니다. 여러분은 모든 일을 해결해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졌습니다.

참선도 하고 염불도 하고 기도도 하면 법의 성품이 맑아지고 밝아지게 됩니다. 시방에 법을 구하여서 변함이 없습니다. 닦는 바 공덕이 전부 만족하게 됩니다. 옳다 그르다 차별 의식이 없어져 버립니다. 부처님의 견해에 들어서면 세상이 편안해집니다. 이와 같이 마음이 밝고 맑아서 지혜가 내 마음에서 살아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광명 깨달음의 지혜로 훌륭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친환경 삼베타올선물 SET

NEW 소중한분께 마음을 전하세요~

삼베타올은 강원도에서 재배한 마의 속줄기를 삼베틀로 만들어 선조들의 지혜와 맛을 그대로 담았습니다. 곰팡이를 억제하는 항균성과 향독성이 있는 순수 천연 삼베(헨프)사와 죽사(대나무에 추출한 원사)를 합사하여 제조된 순식물성 제품입니다. 수분을 빨리 흡수, 배출하고 자외선을 차단해주어 피부 자극이 없으며 피부의 노폐물 제거와 혈액순환 촉진으로 곱고 탄력 있는 피부로 바꾸어 드리는 환경친화적 제품입니다.

샤워타올, 세안타올, 수세미 - 3종 세트

27,000원 (배송비 포함)

헨프오일비누

1개 10,000원

■ 건포, 스포 마사지 특징

10분 정도 마른 수건 또는 젖은 수건으로 손발 끝에서부터 심장 쪽으로, 배꼽을 중심으로 둥글게 피부를 마사지 합니다. 외출 후 샤워 전 워밍업으로 건포마사지를 해주면 몸의 신진대사가 왕성해지고 혈액순환이 활발해져 체내에 독소가 쌓이는 것을 막아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피부 보습 및 면역력 향상에도 좋고, 감기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삼베샤워타올 (건포마사지)

- ▶ 혈액순환 및 피부 신진대사를 좋게 합니다.
- ▶ 피부의 더러움과 묵은 각질을 제거해 줍니다.
- ▶ 지지고 활력 없는 피부에 탄력과 윤기를 부여 합니다.
- ▶ 피지분비가 줄어드는 피부에 피지선의 기능을 활발히 해줍니다.
- ▶ 원자목욕용으로 사용해도 좋습니다.

값 15,000원

■ 삼베세안타올

- ▶ 삼베세안타올을 물에 적신 후 얼굴 전체를 마사지 하듯 닦아줍니다.
- ▶ 특히 코 주변을 닦아주면 피지가 제거됩니다.
- ▶ 삼베세안타올을 물에 헹군 후 닦아줍니다.

값 6,000원

■ 삼베수세미

- ▶ 세제없이 식기세척이 가능합니다.
- ▶ 원균, 항독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 ▶ 과일세척에도 세제없이 세척이 가능합니다.

값 4,000원

현대불교 현불샵 |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수송빌딩 2층

T. 02)2004-8216 / F. 02)737-0696 www.hyunbulshop.com

[농협 053-01-269062 | 국민은행 343601-04-046766 예금주 : (주)현대불교신문사]

법회, 환갑, 돌잔치, 칠순 명절 등 각종 행사용 선물로 아주 좋습니다!